

# 전남 학생수 10년새 3분의 1 줄었다

### 2004년 32만명서 2016년 23만명으로

### 광주 중학생 5년만에 1만7000명 감소

### 교원 여초 뚜렷 ... 광주 70%·전남 58%

####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발표

'인구 정책'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가 확산해 드러났다. 한 때 15만6000명(2005년)이 넘었던 전남 초등학생 수는 급감해 올해 1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광주도 6만8000명(2011년)이 넘었던 중학생 수가 올해 5만1000명까지 줄어들었다. 극심한 취업난 등으로 인해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선택하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30일 발표한 '교육기본통계'는 광주·전남 주요 교육지표를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다. 교육기본통계는 올 4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됐다.

◇입학할 학생이 없다...어쩌나= '교육기본통계'로 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 수는 광주의 경우 23만207명으로 전년(23만8598명)에 견줘 8391명 줄었다. 광주 학생 수는 2008년(28만4548명) 정점을 찍었다가 매년 감소했다. 초등학생 수는 13만8670명(2004년)에서 2011년 10만명(10만9760명)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올해 8만9095명까지 줄었다. 중학생은 올해 5만1511명에 그쳐 2008년(7만1092명)에 비해 1만9000여명이 감소했다.

전남도 심각하다. 30만명이 훌쩍 넘었던 초·중·고등학생 수는 2004년(32만4661명)에 견줘 줄어 8만9000여명이나 감소, 23만5483명에 머물렀다. 7만2493명(2010년)이던 고등학생 수도 올해 6만6973명까지 줄었다.

유치원 원아 수가 늘어난 점은 눈길을

끈다. 광주는 2만3741명(2015년)에서 2만4790명(2016년)으로, 전남도 1만9983명(2015년)보다 늘어난 2만801명으로 집계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공방으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을 선호하게 된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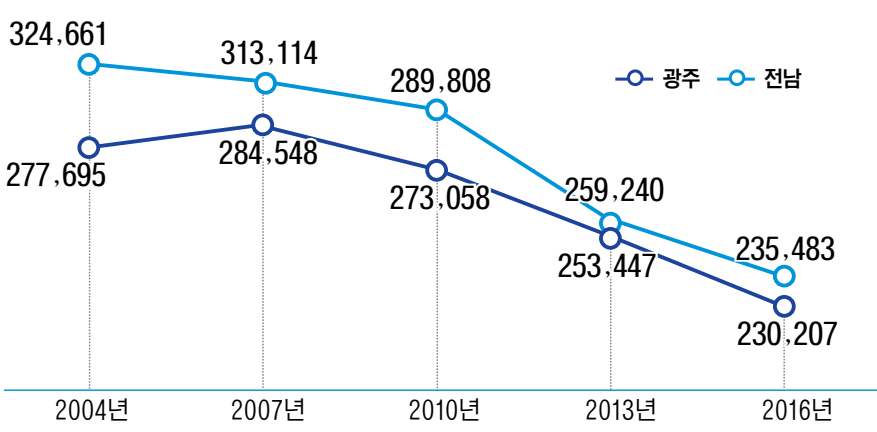
전국적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 수는 663만5784명으로 지난해보다 18만4143명(2.7%) 감소했다.

◇교원 '女超', 대세? = 여성 교원 증가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광주는 전체 교원 1만6339명 중 1만1476명(70.2%)이 여성으로 집계됐다. 여성 교원 비율이 70%를 넘어선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올해 광주 초등학교 여성 교원 비율은 80.4%에 이르고 중학교도 69%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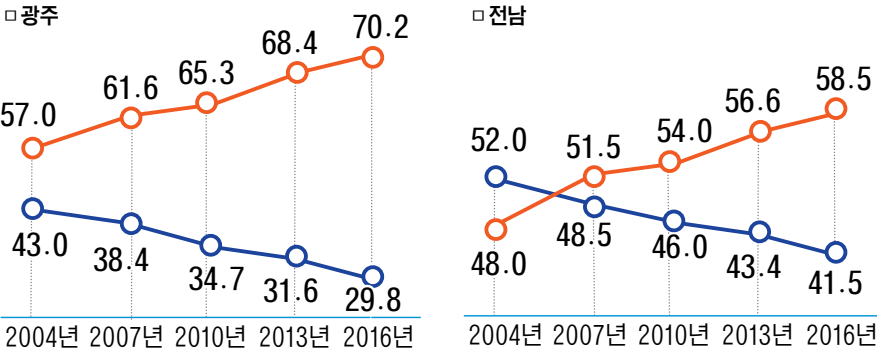
전남도 비슷하다. 여성 교원 수는 ▲2014년 1만1982명 ▲2015년 1만2067명 ▲2016년 1만2219명 등 꾸준한 증가세다. 반면, 2010년 46.0%던 남성 교원 비율은 ▲2012년 44.2%(9094명) ▲2014년 42.9%(9019명) ▲2016년 41.5%(8658명) 등으로 낮아지고 있다.

◇고졸자들, 대학보다 취업 선택...취업난 여파? =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기보다 취업을 선택하는 젊은이가 전보다 늘어나는 추세다. 광주에서 올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2만1863명 중 대학 진학자는 1만6772명으로, 졸업생 대비 대학 진학률

#### ■ 광주·전남 유·초·중등학교 학생 수 추이(단위:명)



#### ■ 광주·전남 연도별 교원 성별 추이(단위:%)



은 76.7%로 전년도(77.7%)보다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취업을 택한 경우는 광주가 올해 35.8%(1812명)로, 지난해(1622명·33.9%)보다 1.9%포인트 증가했다.

전남도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지난해(65.4%·4118명)보다 늘어난 68.6%(4507명)로 집계됐다. 전남의 올해 고교 졸업생(2만3094명) 중 대학 진학자는 1만6444명(71.2%)으로 파악됐다.

◇글로벌 사회...다문화 학생 수 증가 = 외국 출신 부모를 둔 다문화 학생 수도 증가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

광주는 2012년 1086명이던 다문화 학생 수가 ▲2013년 1251명 ▲2014년 1520명 ▲2015년 1899명 ▲2016년 2404명 등으로 늘어났다. 전남은 훨씬 많다. 2012년 3737명이던 다문화 학생들은 2014년 5023명으로 급증했고 올 들어서는 6977명까지 늘어나면서 7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나주 608명 ▲순천 600명 ▲화순 407명 ▲영암 388명 ▲무안 325명 등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보다 20.2% 증가한 9만9186명으로 조사됐다. /김지율기자 dok2000@

전남도는 가뭄·적조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 등 43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30일 김갑섭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가뭄 및 적조 피해 방지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가뭄 상황에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진입한 신안, 무안, 해남, 장흥, 영광지역의 농작물 피해상황과 복구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도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등 총 43억원의 사업비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앞서 적조주의보가 발효된 여수~장흥간 전 해역에 예산 25억원을 긴급 배정해 적조 방제에 나섰고 적조예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가뭄·적조 68억 투입

전남도는 가뭄·적조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 등 43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30일 김갑섭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가뭄 및 적조 피해 방지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가뭄 상황에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진입한 신안, 무안, 해남, 장흥, 영광지역의 농작물 피해상황과 복구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도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등 총 43억원의 사업비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앞서 적조주의보가 발효된 여수~장흥간 전 해역에 예산 25억원을 긴급 배정해 적조 방제에 나섰고 적조예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4    달출 04:43  
해질 19:01    달짐 18:18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구름이 많고,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겠다.

#### ◇지역별 날씨(°C)

구분	도시	날씨	기온
광주	소나기	구름많음	17/26
목포	구름많음	구름많음	19/28
여수	구름많음	구름많음	19/27
나주	구름많음	구름많음	19/26
완도	구름많음	구름많음	20/26
구례	소나기	구름많음	19/25
강진	구름많음	구름많음	19/25
해남	구름많음	구름많음	19/25
장성	구름많음	구름많음	21/25

#### ◇바다 날씨

구분	바다	기온	바다	기온	
서해	남부	서~북서	2.0~4.0	남서~서	2.0~4.0
남해	서부	서~북서	3.0~4.0	남서~서	3.0~4.0
남해	동부	서~북서	3.0~4.0	남서~서	2.0~4.0
남해	서부	서~북서	3.0~4.0	남서~서	2.0~4.0

#### ◇물때

구분	물때	물때
목포	01:30	06:47
	13:34	18:53
여수	08:27	02:20
	20:52	14:25

#### ◇주간 날씨

구분	9/1(목)	2(금)	3(토)	4(일)	5(월)	6(화)	7(수)
날씨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기온	22/29	23/28	23/28	23/29	23/31	22/30	22/29

#### 조선대 총장선거 내달 20일 실시

#### 전남대는 오늘 선출 방식 확정

조선대 총장 선거가 오는 9월 20일 치러진다.

30일 조선대 총장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오는 9월 20일께 선거를 치르기 위해 다음달 5일까지 후보 공모를 받기로 했다. 세부 선거 관리 규정은 조만간 열리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할 예정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조선대는 총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방식과 참여비율을 놓고 갈등을 겪다 최근 선출 방식을 최종 확정했다.

전남대는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총 3각 직선제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구성원 투표를 거쳐 총장 선출방식을 최종 확정키로 한 상태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서구 금요일시장, 상무시민공원으로 옮긴다

#### 서구청-노점상대책위-주민대표 오늘 상생협약식

광주 상무금요일시장(노점)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가 30일 서구청이 제시한 상생방안을 받아들여기로 하면서 노점시장 폐쇄를 둘러싸고 대립해오던 서구청과 노점상인 간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광주시 서구는 서구청, 노점상인 대표, 주민 대표 등 3자가 상무금요일시장 노점상인 이전과 이전 후 노점시장 활성화 방안을 담은 상생협약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3자가 작성한 상생협약서에 따르면 매주 금요일이면 서구 치평동성당과 한국은행 맞은편 인도에 터잡아 좌판을 펴오던 상인 200여명은 다음달 23일까지 500m가

랑 떨어진 상무시민공원 일원으로 옮겨가기로 했다.

서구는 공원 도로변으로 이주해 지정된 장소에서 장사를 이어가는 노점상인들에게 추가적인 행정처분(과태료), 고소고발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나아가 상인들이 옮겨간 노점시장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대표, 노점상인, 시장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이 함께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노점상인과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서구는 상무시민공원 주변에 간이 화장실을 확충하고 수도 및 전기시설도 설치하기로 했

다. 무질서한 시장 형성을 막기 위해 노점상인 1인당 점용면적 기준도 협의를 통해 마련 중이다.

임우진 서구청장, 김만호 상무금요일시장 비대위원장, 박준수 상무금요일시장 대책위원장 등 3자는 31일 오전 10시30분 서구청에서 이날 합의한 내용이 담긴 상생 협약서에 서명하는 행사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노점 상인들은 시장 이주 합의에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완전히 수습될지는 미지수다. 상무지구 치평동성당 주변 인도에는 지난 1996년부터 매주 금요일이면 노점상인들이 좌판을 펴왔다. 10여명 안팎의 상인들이 곡물, 과일, 생선 등 농산물 위주로 장사를 해오다가 수년 전부터는 노점상인 숫자가 250여명에 이르렀고 품목도 다양해지면서 보행자 통행 불편, 교통 체증, 인근 점포 피해 호소 등 각종 민원이 야기됐다. /김형호기자 khh@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총-30812호

##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신 원장

###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국가가 인정하고 지원하는 착한보청기협동조합

# 보청기

전남지역 어디든 무료출장

## "불만족 100% 환불"

"울리지 않고 잡음 없이 깨끗한 소리 착한 보청기"

출장문의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